

광주시 '글로벌 마이스 도시' 구축 박차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마케팅·생태계 구축·전문인력 육성 마이스 산업 세계적 경쟁력 확보

광주시가 글로벌 마이스 중심도시 광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라 국제회의산업 성장기반과 생태계 조성,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원사업 등을 통해 마이스(MICE) 산업 및 연계된 지역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회의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광주 MICE 브랜드 및 혁신 마케팅 ▲지속가능한 광주 마이스파크 생태계 구축 ▲Smart & Fun MICE Park 조성으로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 강화 ▲광주 MICE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을 집중 추진한다.

광주시는 우선 광주 마이스 브랜드 및 혁신 마케팅 강화를 위해 광주에 남기는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국제회의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 김대중국제회의복합지구(유산) 사례 활용을 통해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특히 최근 국제회의 산업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 이슈가 강조되고,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광주마이스파크 생태계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마이스 적합 기준 관련 국제 표준인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ISO2012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한편 국제회의복합지구를 통합 안내하는 키오스크 등 다양한 선진 시스템 등도 도입한다.

또 국제회의복합지구를 3D 가상현실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구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최첨단 국제 회의기술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어 국제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문화 공연 개최, 문화콘텐츠 전시,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스마트하고 재미있는 마이스 도시 조성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시는 이 밖에도 미래 광주 마이스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컨벤션 기획가 양성과정, 마이스 통역사 양성특강, 찾아가는 마이스 교육, 마이스 대학생 리더 양성 캠프 등 실무 능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겠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마이스 도시 구축' 사업으로 대규모 방문객 유치는 물론 교통, 숙박, 공연, 쇼핑 등 연관 산업 규모 확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마이스 중심 도시 이미지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성배 광주시 관광도시과장은 "광주 특화 국내외 마이스 발굴·유치 확대와 지역 전략산업 성장연계를 통해 미래산업 선도 글로벌 마이스 중심도시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복합쇼핑몰 유치 건의 가장 많아

시민 제안 '듣는다 우체통'

광주시 121건 수용·39건 검토

광주시가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듣는다 우체통'으로 접수된 시민 제안에 최종 응답하고, 적극적인 정책 반영 등을 약속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인 '듣는다 우체통'에는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175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분야별 도시·안전·교통 89건, 돌봄·교육·건강 24건, 산업·창업·경제 20건, 관광·문화·체육 16건, 공공혁신·ESG(환경·사회·지배구조) 13건, 복합 민원 13건이다. 최근 지역 주요 이슈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치(12건),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11건)가 가장 많았다.

광주시는 121건(69.1%)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39건은 법령 개정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15건은 법령상 저촉 등에 따른 '수용 불가'로 분류했다.

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복합 쇼핑몰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단지, 에너지 밸리 정주 요건 개선,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발달장애인 가족 자살 예방, 청년 일자리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재추진, 유학생 장학금 지원, 호남권 국회도서관 유치, 양동북개상가 철거, 광주전 복원 등 중장기 검토 과제는 시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 논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보건복지부 중복사업인 장애인교통카드 발급과 시청 통근버스 시민개방(관련법 위반), 5·18유공자 명단발표(국가보훈처 고유업무), 학운 IC 무료화(관련 운영조례 근거 정수),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위한 도로 열선설치(비용 대비 사업효과 낮음), 경기도 광주시 명칭변경(경기도 광주시 소관업무), 운수종사자 교육시 무료점심 제공(기부행위), 무릎길 관광 활성화(조례에 따라 원형유지 원칙), 광주-고양 백석고속버스 운행 철거(전남도 소관업무), 광주시에 숨겨져 있는 종교집단과 조상님 묘시는 집단 처벌(헌법상 불가) 등 15건은 '수용 불가'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강하면서 쓰레기 줍기

광주도시공사 '청렴 플로깅'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무등산 중심사길 일대에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플로카 업)과 영어 단어 'jogging'(조깅)의 합성어로 '조강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친환경 실천 운동인 동시에 부패·공익신고보호자 제도 등 반부패 제도 홍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정민권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으로 신뢰받는 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을철 나들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10월 교통·자전거 사고 가장 많아

광주시 미끄럼·낙상 등 주의 당부

광주시가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가을철 교통·자전거 관련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교통사고는 10월과 11월, 자전거사고는 6월과 10월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전방 주시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전 좌석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수칙과 기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특히 자전거는 운전자 외부에 노출돼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높은 만큼 헬멧과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행 전 고장이나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등산객이 급증하는 가을철 산행사고도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주의 대상으로 꼽았다.

광주시는 산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행 전 날씨와 등산 경로 등을 확인하고 안전체조로 몸을 풀 뒤 낙엽이 쌓인 곳이나 절벽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등산이나 캠핑·레저 활동 시 큰 일교차에 대비해 저체온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온 유지에 신경 쓰고, 진드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해 수시로 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사운드파크페스티벌' 가을밤 물들인다

28~29일...사직공원 일원서

저미·딕펄스 등 뮤지션 공연

도시 가을밤을 물들일 '2022 광주 사운드파크페스티벌'이 28-29일 이틀간 광주사직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공동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한다.

공연은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된다. 28일에는 저미, 딕펄스, 질은, 최고은이 29일에는 선

우정아, 몽니, 실리카겔, 권나무가 출연한다. 뮤지션들은 각자 히트곡과 신곡을 4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주할 예정이다.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은 광주 출신 뮤지션으로 2017년 광주음악창작소 공연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바 있다.

무드리스트, 모멘트, 쉰이, 양향태, 임준식, SOOF, 마인드바디앤소울, 기드온 등 지역 대표 뮤지션의 무대도 예정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모든 반주를 밴드가 직접 연주하는 등 라이브콘서트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공연장 곳곳에 캠핑 및 파티용품 등 피크닉 분

위기를 연출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무대를 선사한다.

2016년부터 개최된 사운드파크페스티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광주 대표 음악 축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이었던 2019년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공연 등으로 진행된 2020-2021년 이후 3년 만에 유료공연으로 전환했다.

입장권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티켓링크 검색창에서 '사운드파크'로 검색하면 된다. 입장권 가격은 1일권 4만4000원, 2일권 6만6000원이다. 입장권 구매자와 동반한 만 13세 이하의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하세요

광주시 15억원 투입 460여대 지원

광주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15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노후 경유차 460여대의 매연 저감장치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면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지원 대상 차량은 사업 변경 공고일 기준 사용 분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됐고, 차량 최초등록일이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저감장치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250만~1340여만원이며 신청서 부당금은 장치가격에 따라 10만~65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bizcar/main.do)'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해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부착 비용이 지원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탈거한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도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